

보도시점 (인터넷) 2024. 5. 19.(일) 11:00
(지면) 2024. 5. 20.(월) 조간

배 포 2024. 5. 17.(금) 오후

민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 철저히 점검한다

- 5. 20.(월) ~ 6. 21.(금)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월 20일(월)부터 6월 21일(금)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동류·활가리비·냉장홍어 등 중점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약 2,500곳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나선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들은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확인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상인들의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와 소비자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시장의 자율 감시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라며, “정부도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시 및 특별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 하겠다.”라고 말했다.

| | | | | |
|---------------|---------------------|-----|-----|--------------------|
| 담당 부서 <총괄> | 어촌양식정책관 수산물안전관리과 | 책임자 | 과 장 | 강거영 (044-200-5940) |
| | | 담당자 | 사무관 | 홍성현 (044-200-5414)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 책임자 | 과 장 | 김종모 (051-400-5750) |
| | | 담당자 | 사무관 | 백승록 (051-400-5770) |

참 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 사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 사진1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 사진2